

국내 구제역 발생 및 우리의 할 일



박 옹 호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노노

황사에 의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가 사실이라면, 국내에서의 소, 돼지 등 우제류에 대한 축산은 어려운 상황으로 내닫게 된다. 금년에만 황사가 발생하고 그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1934년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바있던 구제역이 그 동안 국내에는 전혀 발생되지 않았으며, 현재 최신의 기술과 장비로 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역, 방역 및 수의연구 수준이라면 단시일 안에 구제역을 국내에서 몰아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죽죽

지 금 우리는 매우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 구제역에 의한 피해가 단순히 축산업의 일부분만을 잠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식량 안보는 물론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간이 상당히 크고 길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 파주에서만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 확산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지금까지 서해안에 국한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당초 역학조사와는 달리 내륙으로 한참 들어가고 경상도 지역과의 요충지로 알려진 충주에 추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발병 및 전파가 진행되고 있고 추후 장기간 동안 이에 대한 경계를 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정부의 역학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백신정책 및 살처분, 도축, 수매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백신정책을 채택한 것은 현 단계에서는 최선책이지만 이는 질병 자체의 완전무결한 근절은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황사에 의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가 사실이라면, 국내에서의 소, 돼지 등 우제류에 대한 축산은 어려운 상황으로 내닫게 된다. 금년에만 황사가 발생하고 그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1934년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바있던 구제역이 그 동

구제역 방역 추진 상황 점검과 사후대책 마련

안 국내에는 전혀 발생되지 않았으며, 현재 최신의 기술과 장비로 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역, 방역 및 수의연구 수준이라면 단시일 안에 구제역을 국내에서 몰아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구제역 청정국가'의 욕심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중국, 대만, 일본 등 최근에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들의 진행상태를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전환하여 그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돼지의 백신접종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돈의 도축 및 수매로 국내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발생은 젖소와 한우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동 제한으로 인하여 막상 더 큰 피해는 돼지가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기관에서는 과연 국내 발생 구제역이 소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변이종인가도 하루속히 밝혀내야 한다. 단 한번의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2~3차례 이상 접종해야 하므로 더욱 정확한 정보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항간에서 혼동을 조장한 바 있는 소위 'bovine type' 이 아니라 돼지에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 판명된

만큼 더욱 돼지로의 전파 여부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

비록 해명은 되었으나 추후 '구제역 청정국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발생지역 10km이내의 모든 소, 돼지에 대한 백신접종과 백신접종 동물은 모두 도축하겠다는 정부의 처음 발표는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 꼴이 되고 말았다. 경제 연령이 1년 정도인 한우, 비육우나 돼지와는 달리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의 경제수명은 7, 8년에 이르기 때문에 도축 후 이를 만회하기에는 축산 농가로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소에서만 발생되었고 15건의 발생 보고에 그치고 있는 것은 방역 당국의 발빠른 대처와 효과적인 질병 차단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소강 상태에 있는 구제역이 다시 확산되거나 돼지의 추가발생이 확인된다면 국내의 구제역 근절은 매우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되어 이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구제역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치 않아 문제가 야기 되면 관련 지방자치 단체장을 엄중 처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당연한 일이지는 하나, 만에 하나 이러한 일을 두려워한 나머지는 은폐하거나 축소한다면 이는 더욱더 큰 문제를 추가로 야기하게 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벌 정책보다는 신고자에 대하여 시가 이상의 격려정책을 펴나가면서 추후 처벌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bonus to penalty policy)이 어떨까 하고 제안하고 싶다.

지금 정부에서 나서야 할 일은 국내 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가격 안정이다. 축산농가와 축산업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비상 시국인 지금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과감히 제거하여 소비자, 시민단체와 함께 소·돼지고기 소비촉진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언론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도함으로써 생기는 축산물 소비위축심리 및 소비자 불안을 야기치 않도록 신중한 보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사람



에게 전혀 무해한 소,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탈피하여 합리적인 판단으로 '가구별 쇠고기·돼지고기 한 근 더 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도록 앞장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단합된 모습과 행동으로만이 최근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국익 우선의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영국의 광우병, 네덜란드의 돼지콜레라, 대만의 구제역 등 관련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동물에서의 질병 발생을 보아왔다.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원래의 산업구조로 돌리기에는 많은 경비와 노력이 필요하며 장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돼지 등 다른 우제류 동물로 전염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구제역과 같이 일단 발생한 바이러스질환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절대로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되며 폐사축 소각 매몰에 따른 오

염을 차단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단순한 한가지 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 관련산업이 총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연관을 맺고있으며 이러한 끈이 단단한 신뢰성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성숙한 인간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밝은 미래를 세워갈 수 있리라 생각한다. ☺

〈필자연락처 : 0331-290-2715〉

농가형 유가공 공장 견학 및 선진낙농 연수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는 해외 농업연수 계획에 따라 7월초 개방화시대에 낙농농가의 새로운 활로인 농가형 유가공을 탐색하고 선진화된 낙농산업을 연수하기 위해 일본 북해도 지역 연수를 실시 합니다.

특히 낙농농가형 유가공공장 견학만이 아니고 낙농농가의 큰 어려움인 유방염과 부제병 퇴치를 위한 신기술 습득과 새롭게 다가온 21세기 전략형 낙농업을 연수하는 계획을 세우고 모집하고 있사오니 뜻있는 농가들께서는 많은 연락바랍니다.

▪ 견학기간 : 4박 5일

▪ 연 락 처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연수부 TEL : (02)794-7270